

화교들, 영주권 부여 방침에 '활짝' (조선일보 2001.03.31)

화교들, 영주권 부여 방침에 '활짝'

“영주권 취득은 이방인처럼 외면당해온 2 만 2000 여명의 화교가 대한민국 사회의 정식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첫걸음입니다.” 30 일 오후 1 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한성화교중고등학교의 점심시간. 교복차림의 학생들이 운동장과 교실 곳곳에 모여앉아 영주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. “영주권이 주어지면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을까?”, “주민등록번호를 받으면 인터넷 한글도메인의 이메일부터 받아야겠다”, “한국학교로 전학 갈 수도 있겠네”, “휴대전화 살 때도 보증금 안 내도 되는 거야”. 영주권 제도 소식을 들은 학생들의 궁금증은 끝이 없었다. 이 학교 샤오상량(소상양·57) 교무주임은 “그동안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나쁜 생각을 갖게 될까봐 영주권에 대한 교육을 일부러 시키지 않았는데도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평생 살아갈 애들이기 때문에 관심이 높은 것 같다”고 말했다. 5 년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 한국에 정착한 화교 사회는 기대감에 들떠 있다. 이 법이 제정돼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경우,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95% 가량이 화교들이다. 화교는 전세계 100 여개국 이상에 3000 여만명이 퍼져 살면서 대부분 귀화하지 않고 그 나라 영주권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. “한국은 화교에게 영주권을 허용하지 않는 거의 마지막 나라”라는 게 화교들의 설명이다. 그동안 화교들은 5 년마다 한번씩 법무부에 거주지 등록을 해야 했다. 불편도 불편이지만

언제든 한국사회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심리적 불안감과 피해의식이 컸다. 한성화교협회 유국홍 회장은 “일제 때 함께 독립투쟁을 하고, 6·25 전쟁 때는 총을 들었던 우리가 왜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”며 “한때 10 만명이 넘던 화교들 중 70% 이상이 한국을 등지고 미국 등으로 2 차 이민을 갔다”고 말했다. 그래서 화교들은 “이번 법 제정 추진은 한국에서의 화교의 위상을 높이는 상징적인 조치”라고 환영하고 있다. 화교 3 세인 부자오치(복소기·48) 대만대표부 대리총영사는 “이제 화교들은 김치 없이는 못 살 만큼 한국 사회에 동화돼있다”며 “논의로만 그치지 않고 하루빨리 법 제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(나지홍기자 willy@chosun.com)

<http://www.chosun.com/svc/news/www/viewArticle.html?id=200103300397>